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A Study of Interlanguage of Chinese Korean Learner

-Focusing on the Korean Past Tense-

2011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희 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위

장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서주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2011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5
1.3. 선행 연구	7
1.3.1. 대조분석 연구	7
1.3.2. 오류분석 연구	8
1.3.3. 중간언어 연구	8
2. 이론적 배경	11
2.1. 한국어 과거시제의 문법적 특징	11
2.1.1. 시제 범주	11
2.1.2. 과거시제의 문법적 특징	12
2.2. 중간언어 이론	15
2.2.1. 중간언어의 개념	15
2.2.2. 중간언어의 특징	18

3. 연구 절차 및 방법	21
3.1. 연구 절차	21
3.2. 조사 연구 방법	22
3.2.1. 문법 항목 설정	22
3.2.2. 조사대상자 선정	25
3.2.3. 자료 수집	26
3.2.4. 예비조사	28
3.2.5. 본조사	29
3.3. 자료 분석 방법	29
3.3.1. 유효화 기준	29
3.3.2. 통계 처리 방법	29
4. 한국어 과거시제에 대한 중간언어 양상 분석	31
4.1. 통계 처리 결과	31
4.1.1. 기본형 ‘-았/었/였-’	31
4.1.2. 회상형 ‘-더-’	32
4.1.3. 관형사형 ‘-(으)ㄴ/ -던’	34
4.2. 구두 인터뷰 결과	37
4.2.1 초급 학습자의 중간언어 양상	38
4.2.2. 중급 학습자의 중간언어 양상	41
4.2.3. 고급 학습자의 중간언어 양상	46

5. 결론 및 제언	50
참고문헌	53
<부록 1> 한국어 과거시제 습득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지	57
<부록 2> 구두 인터뷰 문항	61
<부록 3> 참고그림	63

표 목 차

<표 1>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각 문항별 의도된 시제 문항	23
<표 2> 면담 질문지 내용	24
<표 3> 드라마 질문	25
<표 4> 중국 전통 전설의 내용	25
<표 5> 연구 조사대상자 정보	26
<표 6> 한국어 능력 수준별 ‘-았/었/였-’ 정답률	31
<표 7> 한국어 능력 수준별 ‘-더-’ 정답률	33
<표 8> 한국어 능력 수준별 ‘동사+-(-으)ㄴ’ 정답률	34
<표 9> 한국어 능력 수준별 ‘형용사/이다+던’ 정답률	36
<표 10> 한국어 능력 수준별 오류 현황	37
<표 11> 과거시제 표현 오류	38

그림 목 차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도별 증가 추이	1
[그림 2] 시제 표시도	12
[그림 3] 과거시제 표현도	13
[그림 4] 중간언어(Interlanguage)의 개념도	16
[그림 5] 연구 순서도	21
[그림 6] 한국어 능력 수준별 ‘-았/었/였-’ 정답률	32
[그림 7] 한국어 능력 수준별 ‘-더-’ 정답률	33
[그림 8] 한국어 능력 수준별 ‘동사+(으)ㄴ’ 정답률	35
[그림 9] 한국어 능력 수준별 ‘형용사/이다+던’ 정답률	36

<ABSTRACT>

A Study of Interlanguage of Chinese Korean Learner

-Focusing on the Korean Past Tense-

Zhang Wei

Advisor: prof. K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Because of the big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s in the grammar system, so the Chinese learners are experiencing great difficulty learning Korean. As Korean belonging to agglutinative language, it's either the combination of the pre-final ending and tense or expressing the tense by virtue of a modifier form. Whereas, Chinese as the isolating language using vocabulary like accurate times words or conjunction to make ex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rom the view of Interlanguage searching the errors in the expression of the past tense among several sentence structures in Korean and analyze it basing on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o see whether there is any aspect. In order to seek a teaching and learning way to decrease the errors.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we selected 82 Chinese learners who are learning Korean in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the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Gwangju. And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Korean proficiency, 18 people are elementary, 41 people are intermediate, 23 people are

advanced. The research method is analyzing the learners' spoken materials using both grammaticality judgement test and questionnaire utilized oral interview.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Above all, the results of grammaticality judgement tes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elementary learners because of the lack of grammatical knowledge so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re few and low about the past tense.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recall-type "-더-" and modifier form is 26.39% and 26.67%;

Second, for intermediate learners because their Korean proficiency are in learned situation so their number and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re both higher than elementary learners. Especially in basic form and recall-typ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 with advanced learners;

Third, comparing with elementary and intermediate learners advanced learners'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re significantly higher.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survey questions are all showed more than 70%. There is no big difference among each survey.

Next, the summarization of the oral interview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elementary learners there are errors when they express the past tense using sentence termination-expression and connection-ending. In sentence termination-expression they use the present tense instead of the past tense. The supposition for past tense '있었을 것 같아요?' made by questioners is not only for testing the Chinese learners' incompetence in past tense the pre-final ending '-았-' but also show the incompetence in using '-(으)ㄴ 것'. It is because in Chinese for connection sentences

precedent and escorting section must match in tense, so it shows a lot of errors in connection endings. The reason why elementary learners don't have errors in pre-noun clause is that they have not learn it yet;

Second, for intermediate learners they have errors in sentence termination-expression, connection-ending and pre-noun clause. Especially in the past expressed '-었었-' appears as the characteristic. Although they have learned the past expression as the pre-final ending '-었었-', they can not clearly separate the '-았/었/였' and '-았었/었었/였었' in the communication situation. We can see various errors during the intermediate learners when they use the past t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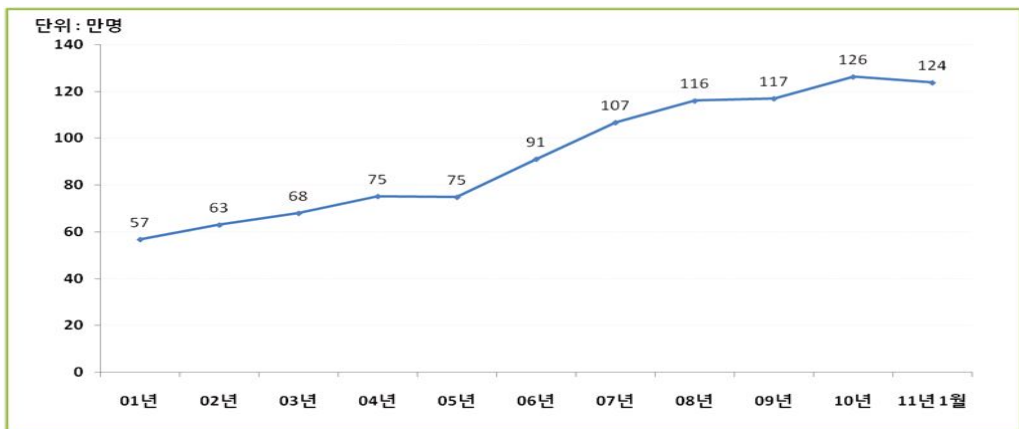
Third, for advanced learners though they have errors in sentence termination, connection-ending and pre-noun clause, mostly showed errors in the use of irregular predicate. The form changes of irregular predicate is difficult for Chinese learners in grammatical. In addition, they made mistakes using the past tense the pre-final ending '-었-' in pre-noun clause. It is the result that because of the incompetence of the abbreviated analysis of the stem in the past tense morphemes and therefore use the past perfect tense.

In this study, there are parts that did not reveal clearly about Chinese learners in the past tense in Interlanguage aspect. It needs continued research to find the other various causes that past tense affects the Interlanguag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about the Interlanguage aspect in not only the past tense but also the present and future tense is continuing.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의 흐름 속에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시화·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 물결의 중심에 서 있다. 다른 인종·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국경 없는 이주민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박천웅, 2006). 이러한 다문화 시대 속에서 다문화 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국내 체류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2월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사상 처음 57만 명을 돌파하여 124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도별 증가 추이

[그림 1]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출입국자와 체류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및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방문 또는 거주하는 중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¹⁾ 더욱이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²⁾ 하지만 두 언어의 문법체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어 시제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한국어가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에 속하는 언어로서 시제 선어말어미의 결합이나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서 시제가 표현되는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isolating language)로서 정확한 시간사나 접속사 등 어휘로 시제가 표현되기 때문이다³⁾.

이해영(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어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표현 문법 항목 사용 오류 분석표’를 보면 시제 표현 문법 항목 중에서 ‘-았-’의 오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함축 척도를 통해서 분석된 습득의 순서에서도 ‘-았-’의 습득 순서가 가장 낮은 것으로 제시가 되었다. 이는 과거시제가 중국인 한국어 학

1) 법무부(2007)의 자료에 의하면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중국동포: 26만6천76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2%인 11만7천938명, 베트남이 6%인 6만4천464명, 필리핀이 5%인 5만264명, 태국이 4%인 4만2천792명, 그외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상위 5개국이 70%를 상회하는 71만 6천792명을 차지, 체류외국인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2011년 2월에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유학생의 90,593명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67,623명에 이른다.

3) 김성란(2010)에서는 한·중 두 언어의 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조하였다.

(1) ㄱ. 작년에 그는 서울에 있었다.

去年他在首尔。

ㄴ. 지금 그는 베이징에 있다.

现在他在北京。

ㄷ. 그는 내일 서울에 간다.

明天他去首尔。

(2) 王浩学习韩国语。

ㄱ. 왕호는 한국어를 공부했다.

ㄴ. 왕호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ㄷ. 왕호는 한국어를 공부할 것이다.

(1)을 보면 중국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去年(작년), 现在(지금), 明天(내일)” 등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다. 예문 (2)를 보면 앞뒤의 언어 문맥에 따라 (2ㄱ)처럼 과거시제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2)를 보면 앞뒤의 언어 문맥에 따라 (2ㄱ)처럼 과거시제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2ㄴ)처럼 현재시제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며, (2ㄷ)처럼 미래시제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나 부사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문장 앞뒤의 문맥은 시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습자들에게 난해한 문법 형태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제 표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1) ㄱ. A: 주말에 뭐했어요?

B: 친구랑 여행 *가요(갔어요).<초급>

ㄴ. A: 지난 주말에 저녁 뭐 먹었어요?

B: 친구랑 고기를 *먹어요(먹었어요).<초급>

(2) ㄱ. A: 민웅 씨랑 왜 만났어요?

B: 민웅 씨에게 사탕을 *줬으려고(주려고) 만났어요. <중급>

ㄴ. A: 영화관에 갔다왔어요?

B: 영화관에 *가지만(갔지만) 표가 없어서 그냥 *온다. <중급>

(3) ㄱ. A: 언니는 엄마를 *답습니다(답았습니다). <고급>

B: 왕명 씨는 아주 *잘생깁니다(잘생겼습니다). <고급>

위의 예들 가운데, (1)은 과거시제를 현재시제로 표현함으로써 나타난 오류로서, 초급 학습자들이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를 사용할 때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다. (1ㄱ)은 동사 ‘가다’의 어간 끝 모음 ‘ㅏ’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았-’을 붙이고, (1ㄴ)은 ‘먹다’의 어간 끝 모음 ‘ㄱ’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었-’을 붙인 형태이다. 이는 모음조화를 배운 초급 학습자들이 어간 뒤 어미의 연결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과거시제의 사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음으로, (2)는 연결어미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오류이다. (2ㄱ)은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려고’가 사용되었는데, 현재시제로 표현해야 할 부분에 과거시제 ‘-었-’을 결합함으로써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급 학습자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았-’을

결합해서 써야 한다는 잘못된 문법 지식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볼 수 있다. (2ㄴ)은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지만’이 사용되었는데, 과거시제를 써야 함에도 연결어미 앞에서 ‘-었-/-았-’을 쓰지 않아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2ㄴ)에서는 문장 종결어미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중급 학습자의 경우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3)은 과거시제 표시 ‘-었-/-았-’과 형용사의 결합에서 생긴 오류이다. ‘닭다’와 ‘잘생기다’는 얼굴의 생김에 대하여 서술할 경우 쓰이는 형용사이다. (3ㄱ)은 형용사 뒤에 모두 ‘-었-/-았-’이 붙어야 할 경우인데, ‘-었-/-았-’을 누락시킴으로 써 발생한 오류이다. 여기서 ‘닭았다, 생겼다’는 과거 사건을 상정하기보다는 과거 완료이자 실현 인식의 화용론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고급 학습자들은 이러한 화용론적 지식을 알지 못해 과거시제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시제 ‘-었-/-았-’이 단순히 과거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었-/-았-’이 지니는 화용론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중국어 학습자의 과거시제 표현 오류 양상을 몇 가지 살펴 보았다. 이러한 오류는 잘못된 것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습득하는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중간언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정하고 발전시켜 가는 중간언어를 밝히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여러 가지 문형들 중 과거시제 표현과 관련된 오류를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어 능력 수준별로 어떠한 오류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제 표현 중에서 과거시제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과거시제의 사용 빈도는 현재시제나 미래시제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초급에서 학습되는 기본 문법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은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 이것은 과거시제에 대한 습득이 원활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과거시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오류분석에 의한 연구 방식이 아닌 중간언어로서 과거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류분석에 의한 연구에서는 과거시제가 잘못 사용된 현상과 환경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시제에 대한 오류는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과거시제 ‘-았/었/였-’ 등을 비롯한 문법 항목의 사용은 여러 가지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간언어로서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어권 학습자들만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수용 증가 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과거시제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언어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국어의 간섭을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모국어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어떤 언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려는 학습자의 언어는 학습자가 제2언어를 처음 접하고 학습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 언어에 대해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은 제2언어 습득 연구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뿌리를 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동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정소아, 2004).

한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과 인식은 모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국어 교육 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김재욱 2003, 2007;허용 외 2005;민현식 2007). 따라서 국어 교육과 달리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연역적 제시에 의한 학습보다는 귀납적으로 습득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

점이 요구된다(Williams, 1999).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광주 광역시 소재 3개 대학 한국어학당의 언어 연수생을 비롯하여 일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초급⁴⁾ 18명, 중급 41명, 고급 23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모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학습자와 제2언어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과거 시제 표현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등급별로 모집단을 구성하여 한국어 능력의 등급에 따른 과거시제 표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함께 질문지를 활용한 구두 면접법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구어 자료를 전사하여 과거시제 표현의 문법적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한국어 교육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와 한국어 과거시제 표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에 진행된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시제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언어와 한국어 과거시제 표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국어 시제 중 과거시제 표현과 시제의 불일치 및 과도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 조사대상자 설정 기준과 연구에 사용되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질문지를 활용한 구두 인터뷰의 문항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과거시제 표현에 대한 초, 중, 고급에 나타나는 과거시제 오류의 중간언어 양상을 인터뷰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로 나누어 따로 제시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하나의 제언으로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과거시

4) 본 연구에서 초급 학습자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이상이며, 한국어 학습 시간이 240 시간 이상인 중국인 학생을 선정하였다.

제 표현을 습득할 때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1.3.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과거시제에 관한 한국어 교육적 연구 및 논의는 다른 주제에 비해 연구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받아 왔고, 그 결과 한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현상이 없을 정도로 축적된 연구 성과도 상당하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과거시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조 분석이나 오류 분석 정도로 그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대조연구, 오류연구, 중간언어 연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1.3.1. 대조 분석 연구

대조 분석 연구들로서는 羅遠惠(2001), 지성녀(2007), 왕방(2007) 강홍(2010) 등이 있다.

羅遠惠(2001)에서는 중국어의 과거시제, 완료상 그리고 지속상을 나타내는 ‘了’를 중심으로 한국어와의 대응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두 언어 시제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지성녀(2007)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를 대조하였다. 한·중 시제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과거시제 ‘-었-’과 중국어의 과거 시제 표시 ‘着’, ‘了’, ‘過’의 대조 관계를 기술하였다.

왕방(2007)에서는 한국어 시제 체계와 중국어 시제 체계를 대조하였다. 두 언어 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두 언어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각각의 시제 형식을 대조하여 논의하였다.

강홍(2010)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 대비를 통해 그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과거시제 ‘-었-’, ‘-더-’, 현재시제 ‘-는-’, 미래시제 ‘-겠-’의 중국어와의 대비 관계를 기술하였다. 그중에서 과거시제

형태소 ‘-었-’과 중국어의 ‘了₁’, ‘了₂’, ‘-더-’와 중국어의 ‘來着’, ‘過’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3.2. 오류 분석 연구

오류 분석 연구들로서는 김재욱(2005), 이정희(2001), 김성란(2010) 등이 있다.

김재욱(2005)은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표현 문법 형태의 용법별 중간언어의 오류를 언어권과 단계별로 분석하고, 학습자의 발달 패턴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함축적 평가(implicational scaling)를 이용하여 언어권별로 한국어 미래 시제 형태에 관한 용법별 발달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정희(2001)는 일본인, 중국인, 베트남인, 루마니아인 등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시제 오류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원인을 살펴보았다. 쓰기 자료는 정문을 포함하여 총 1,350개의 문장이었으며, 이들 문장 중에서 오류문 509개를 대상으로 언어권에 따라 시제별로 오류빈도를 분석하였다.

김성란(2010)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산출해 낸 ‘-았-’에 대한 오류 현상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았-’을 습득함에 있어서 어떤 오류 현상을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았-’을 가르침에 있어서 합리적인 교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쉬통(2011)은 중국인 학습자가 초·중급 단계에서 많이 나타난 과거시제 ‘-았/었-, -(으)ㄴ, -던, -았던/있던’과 ‘了, 過’의 용법을 열거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작문과 설문 조사를 통해서 과거시제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이 중 ‘-았/었-, -(으)ㄴ, -던, -았던/있던’의 오류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1.3.3. 중간언어 연구

학습자 언어의 발달 단계에 관심을 두면서 중간언어 변이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이정란(2004), 정소아(2005), 신현정(2006), 전동근(2007) 등이 있다.

이정란(2004)은 ‘-어서’와 ‘-니까’의 변이를 언어적 맥락에 의한 변이와 과제 유형에 의한 변이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서 변이 양상과 원인들을 살펴보고, 각 원인들 간의 영향력 차이까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모국어가 변이에 영향을 미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어서’와 ‘-니까’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문어보다 구어를 늦게 습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소아(2005)는 일본어권 고급 학습자 49명을 대상으로 대용어 사용을 중심으로 과제 유형에 따른 학습자 언어 변이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과제가 요구하는 텍스트의 응집성 강도에 따라 그림을 보고 이야기 꾸미기, 절차적 말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일상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고자 피험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지로 구성된 구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신현정(2006)은 ‘-겠-’과 ‘-(으)ㄴ 것이’를 과제 유형과 언어적 맥락 그리고 모국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밝혔다.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형태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두 인터뷰, 번역 과제 순서로 나타났다. 일, 중, 영어 세 언어권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모국어를 고려한 교수 및 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동근(2007)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제 유형에 따른 조사 ‘을/를’의 변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문테스트>번역테스트>문법성 판단테스트’의 순서로 정확도와 변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제 유형에 따른 해당 문법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전동근(2007)에서는 과제 유형에 따른 조사 ‘을/를’의 정확도와 학습자의 숙달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3가지 과제 유형에서 모두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중급 수준의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을 밝혀냈다.

시제 오류는 주로 학습자 오류 전반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만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시제 표현 문법 항목 습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

다(이정희, 2001;성지연, 2002). 대부분의 연구는 의미나 기능(机能, function)보다는 형태(形態, form)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최근 연구들 중에는 의미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조철현 외, 2002).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어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습자 언어의 변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해영(2003b)은 중국어권 학습자와 일본어권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시제 표현의 발달 패턴을 연구하였다. 함축적 평가(implicational scaling)⁵⁾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개념적으로 과거 표현을 기능별로는 관형형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시제 항목에서 해당 문법 항목을 학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급 학습자가 학습 시간이 경과되어 재구성이 일어난 중급 학습자에 비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 U자형 발달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해영(2004a)은 영어권 학습자 16명을 대상으로 과제 유형에 따른 시제 형태소의 정답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과제 유형에 따라 시제 형태소의 정답률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함축척도를 통해 그 습득 순서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최근 들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나 발달 패턴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로서는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과거시제의 표현을 모국어와 대조하고 오류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가지는 부분만 제시하거나, 문법적인 정리에 그친 연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권이나 영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연구는 많았지만 중국어권 학습자만을 위한 연구는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중간언어에 관한 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 대상으로 과거시제 표현에 관한 단계별 중간언어 양상을 살펴보고, 과제 유형이나 단계에 따른 시제 표현의 정확도와 학습자의 숙달도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5) 이해영(2003b, 2004a)에 의하면 함축적 평가(implicational scaling)란 언어 현상을 동적 틀(dynamic paradigm)로 기술할 때 화자의 변이형 선택이 비록 개별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체계 안에 있음을 보여 주는 정성 분석적 방법이라고 하였다. 사회학자 Guttman(1994)이 사회심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처음 개발하였고 Bailey(1973), DeCamp(1971) 등이 피진이나 크리올어에서의 연속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L2 습득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과거시제의 문법적 특징

2.1.1. 시제 범주

시제(時制, tense)는 자연계의 존재 현상인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언어 표현이다. 시간은 자연의 흐름이므로 나눌 수 없지만, 한국어는 시제라는 문법 범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⁶⁾.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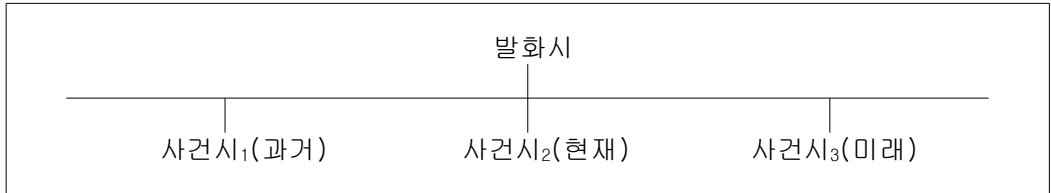
- (4) a.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
- b.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간다.
- c. 철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 (5) a.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
- b. 장미꽃이 예쁘게 핀다.
- c. 장미꽃이 예쁘게 필 것이다.

위의 예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다. (4a)와 (5a)는 과거시제 표현 예문이고, (4b)와 (5b)는 현재시제 표현의 예문이며, (4c)와 (5c)는 미래시제 표현의 예문이다.

시제를 기술할 때 그 상황의 시간적 선후 위치를 표현하는 기준이 되는 때를 기준시(基準時, time reference)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시제 혹은 과거시제라고 말할 때는 보통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이 때의 기준시는 발화시(發話時)가 된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난 때인 사건시(事件時)를 기준시

6) 흔히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는데, 이는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발화시는 말하는 이가 발화를 수행하는(즉 말하는) 시점을 가리키며, 사건시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을 가리키다. 그리하여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이면 미래 시제라고 한다.

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간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시제 표시도

[그림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어떤 사건이 발화시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현재가 되고, 사건이 발화시보다 앞서 일어났다면 과거시제가 되며,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래가 된다.

2.1.2. 과거시제의 문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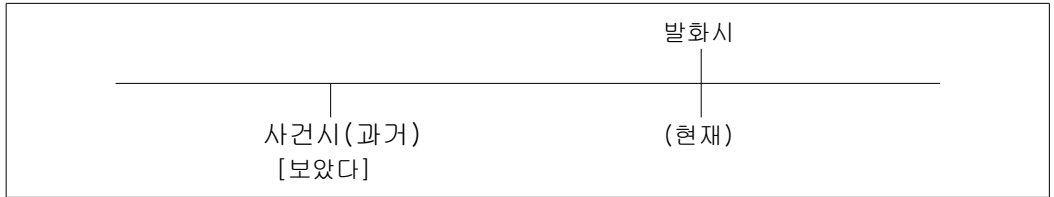
2.1.2.1. 기본형

과거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인데, 주로 선어말 어미 ‘-았-/-었-/-였-’을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시제임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어제’, ‘옛날’, ‘지난’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 (6) a. 철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
 b. 영희는 며칠 동안 매우 바빳다.
 c. 영호는 중학교 다닐 때는 야구를 하였다.

(6a)는 문장들에 나타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점은 모두 발화시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시제가 된다. 따라서 모두 용언의 어간에 ‘-았-/-었-/-였-’이 결합되었다. (6a)를 예로 들어 과거시제의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이 표

시할 수 있다.



[그림 3] 과거시제 표현도

(6)는 ‘철수가 영화를 본 사건’이 발화시보다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동사에는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되는 것이다.

‘-았-/-었-/-였-’은 과거시제 표시에 쓰이는 경우 이외에, 때로는 완료(完了)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수도 있다.

- (7) a. 어느덧 가을이 왔다.
- b. 누나는 이제 막 숙제를 끝냈다.
- c. 민용가 가수를 되기 전에 선생님이였다.

(7)에는 모두 ‘-았/었-’이 실현되어 있지만 이는 과거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낸다기보다 지금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는 과거의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완료상으로 독립하여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2.1.2.2. 회상형 ‘-더-’

하나의 시간 표현으로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선어말어미 ‘-더-’가 쓰인다.

- (8) a. 영호는 어제 도서관에 있더라.
 b. 조금 전에 철수가 이리로 지나가다더라.
 c. 나는 소설책이 좋더라.

(8)의 표현은 모두 현재보다는 이전의 어떤 사건이나 상태를 화자가 경험하고, 이를 회상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형태소가 ‘-더-’이다. 이러한 시제를 회상시제(回想時制)라고 한다.

2.1.2.3. 관형사절

한 문장이 관형사절로서 모문에 내포되어 NP를 수식하게 될 때는 그 관형사절에도 시제가 나타난다. 관형절에서의 과거시제는 관형사형 어미로 실현되는데, 동사의 경우 ‘-(으)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던-’이 쓰인다. ‘던’은 회상 선어말 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형태이다.

- (9) a.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였다.
 b. 나는 즐겁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였다.
 c. 중학생이던 철수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구나.

그런데 동사가 쓰인 관형절에 ‘-던’이 쓰이면 ‘-(으)ㄴ’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다.

- (10) a. 책을 읽은 학생
 b. 책을 읽던 학생

(10)에서 관형절에 ‘-(으)ㄴ’이 쓰이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나, ‘-던’이 쓰이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완수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으)ㄴ’이 [과거 완료]의 사건을 나타낸다면, ‘-던’은 [과거 미완]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2. 중간언어 이론

2.2.1. 중간언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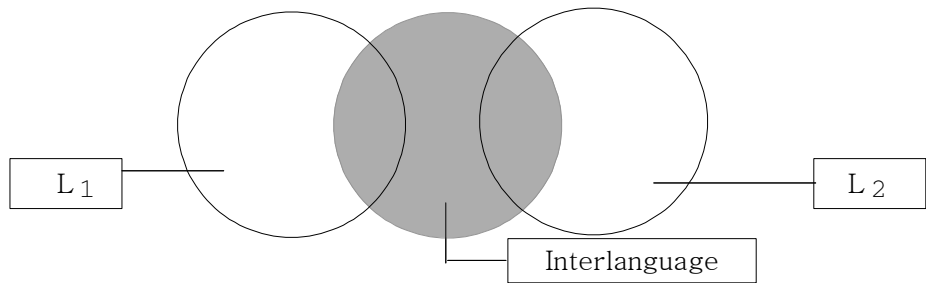
중간언어(interlanguage)란 Selinker(1972)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모국어와 해당 언어 사이의 중간단계의 언어를 일컫는 말이다. 이 중간단계의 언어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해당 언어의 구조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중간언어에 대한 정의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1)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인 제2언어와는 별개의 독립된 언어 체계로서 학습자가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얻는 체계적 지식을 일컫는다.⁷⁾
- (12) 중간언어란 학습자들이 생성하는 언어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는 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요소의 적지 않은 부분이 ML(모국어)과 TL(목표어)에서 온 요소들이다. 또한 NL 과 TL 어느 것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요소들도 있으며, 학습자들 자신이 구문을 이용 가능한 언어 자료에 부과하고 내제화된 체계(IL)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한다.⁸⁾⁽¹²⁾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중간언어는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도 목표어도 아닌 새로운 문법 체계를 갖는 언어를 생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중간언어의 개념은 다음 [그림 4]가 잘 표현해 주고 있다.

7) Selinker(1972)에서는 중간언어를 “a separate linguistic system based on the observable output which results from a learner’s attempted production of a TL norm. This linguistic system we will call ‘interlanguage(IL)”, 라고 정의하였다.

8) Susan M. Gass와 Selinker(2000)역시 중간언어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림 4] 중간언어의 개념도 (Corder, 1981:17)

중간언어의 각각의 단계는 해당 언어체계를 창조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단계마다 적절한 지식을 이용하여, 학습되는 언어체계를 창조적으로 가정, 사용하고 피드백을 통해 이를 점검하면서 실제 해당 언어체계에 근접해 간다.

Corder(1981)는 학습자의 언어가 특정한 학습자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고 그 언어의 규칙들이 그 개인의 언어에만 독특한 것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학습자 특유의 방언(idiosyncratic dialect)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그는 변화하는 학습자의 언어라는 의미에서 과도적 언어(transitional language) 혹은 과도적 능력(transitional competence)을 말하고 있는데, 학습자 특유의 방언이나 과도적 언어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의 연속체이며, 학습자는 그 발달의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 그런데 Selinker(1972)에서는 중간언어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서 화석화(化石化, fossilization)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화석화란 오류적 언어 형식이 목표 언어 능력에 통합되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현상으로 목표 언어에 관해 학습자가 받는 설명이나 지도의 양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 목표 언어와 관련된 중간언어에서 그 자리를 구축하는 경향을 말한다. 또한, 그는 학습자의 외국어 표현에 나타난 오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언어 학습을 위한 건설적 자료로 보고, 오류적 언어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중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국어 전이(language transfer)

학습자의 모국어가 원인이 되는 중간언어의 경우이다. 예컨대 다음의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과거시제를 현재시제로 사용한 오류이다. ‘작년에 나는 광주에 있다(→작년에 나는 광주에 있었다)’라는 비문을 만드는 이유는 ‘去年我在光州’와 같이 시제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어가 목표어인 한국어 학습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어 작문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는 과거, 현재, 미래가 ‘去年(작년), 現在(지금), 明天(내일)’ 등 시간사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고, 이를 일러주는 과거시제 형태소 ‘-었’을 빠트리는 언어 전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연습 과정에서 오는 전이 (transfer of training)

화석화된 언어체계가 학습의 훈련 과정에 기인하는 예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수업에서 교사가 과거시제에 대해 학습할 때 ‘-었’을 중심으로 연습한 결과, 학습자가 ‘-았/였/였’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았’을 써야 할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었’을 쓰는 예이다.

셋째, 제2 언어 학습 전략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학습자가 복잡한 목표어의 체계를 더 단순한 체계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관형사형 어미‘-(으)ㄴ’이라고 문형을 단순화하여 ‘나는 즐겁은(→즐겁던)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라는 문장을 만들고 있다. 이 문장에서 학습자는 ‘즐겁던’이라는 ‘형용사/이다+던’를 ‘동사+-(으)ㄴ’라는 관형사절로 간략화하여 사용함을 볼 수 있다.

넷째, 제2 언어 의사소통 전략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communication)

학습자가 목표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화석화된 항목이나 규칙을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중간언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가운데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받침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과거시제 표현 중에서 관형사절 ‘동사+-(으)ㄴ/는’의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학습

자들은 발화할 때 천천히 생각하면서 ‘동사+-(-으)ㄴ/는’의 구분하며 말하기보다 빨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는’으로만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난 안경을 쓰는 남자가 좋아요”.

다섯째, 목표어 언어 요소의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 of target language linguistic material).

목표어의 규칙을 지나치게 적용시키는 중간언어 현상이다. 예를 들어 ‘가요, 먹어요, 공부해요’ 등의 예를 통해 어말어미 ‘아/어/여요’를 학습한 학습자들이 ‘덥다, 춥다’ 등의 불규칙 동사에도 이를 과잉 적용하여 ‘춥어요, 덥어요’라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중간언어는 모국어도 목표어도 아니며 학습자 자신에게 주어진 언어적 자극을 정리하여 구조화하려는 학습자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Selinker(1972)에서는 학습자 언어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비교적 오래 계속되며 화석화 구조가 목표 언어에서 재발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Nemser(1971)와 Corder(1981)는 학습자 언어의 목표 지향적 발달을 강조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Selinker(1972), Nemser(1971), Corder(1981)는 저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중간언어 개념을 정의하였으나, 요약해 보면 중간언어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 체계를 형성하며, 표준에서 벗어난 오류적 구조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2.2.2. 중간언어의 특징

제2 언어 습득의 두 접근법으로 심리학적 접근법과 언어학적인 접근법이 있는데, 언어학적 접근법의 맥을 이어오는 이론이 중간언어 이론이다. 이러한 중간언어의 특징에 대해 Selinker(1972), Duman(1975)은 상호이해성(mutual intelligibility), 체계성(systematicity), 안정성(stability) 및 후퇴성(backsliding)을 들고 있으며,

Ellis(1985)는 체계성(systematicity), 변화성(permeability), 역동성(dynamic)을 들고 있다. 김정은(2003)에서는 Ellis(1985)에서 주장한 ‘변화성’은 ‘역동성’에 포함된다고 보고, Selinker(1972), Duman(1975)가 주장한 상호 이해성은 학습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정에 의해 언어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라고 보아 중간언어의 특징을 독자성, 체계성, 보편성, 변화성(변이성), 안정성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중간언어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독자성이란, 제2언어 학습자들이 만들어 가는 중간언어는 모국어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목표어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Selinker(1972)는 제2언어 습득자가 만들어 가는 중간언어는 자신이 일종의 복합적이고도 창조적인 절차에 의해 만드는 것이지 결코 모국어의 전이 절차나 목표어에 대한 모방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중간언어의 특징 가운데 체계성이란, 제2언어 학습자가 제2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절차나 과정은 몇 개의 중간언어적 절차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때 제2언어 학습자가 밝게 되는 중간언어적 절차나 단계는 으레 자의적이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언어 이론은 체계성 원리에 의해 Chomsky의 변형문법 이론과 무리 없이 연결된다. 즉 문법 발달 과정을 지극히 체계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간언어 이론과 Chomsky가 내세우는 유표성의 이론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언어 발달과정을 질서 정연한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제1언어 습득이론가들이 내세우는 자연적인 언어습득 순서의 이론과 중간언어 이론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간언어 특징 가운데 보편성이란,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모국어와 어떤 것이거나 어떤 언어 환경에서 목표어를 배우느냐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나 과정에 의해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Chomsky가 주장한 것이다. 이로써 중간언어 이론의 학리적 수준과 차원이 변형문법이론이나 제1언어 습득 이론의 그것과 같아질 수 있다.

중간언어의 양상은 학습자에 따라 다양하므로 학습자들은 목표어 체계의 수용 가능한 표현과 수용 가능하지 않은 표현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하는 변이를 보이다. 그러므로 중간언어는 완전하지 않은 유동적 상태에 있는 언어체계인 것이다. 현재 제2언어 습득론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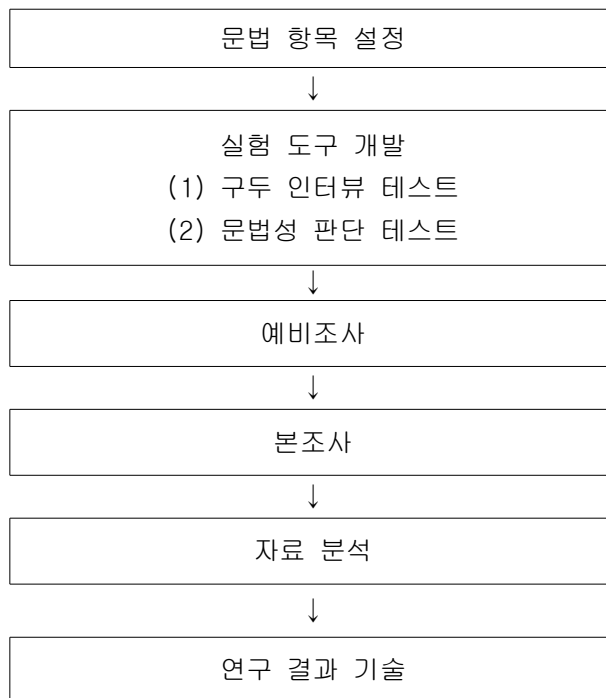
변이성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언어의 안정성, 곧 화석화 현상이란, 틀린 언어 형태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학습자의 제2언어 능력의 한 부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변이성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안정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중간언어 상태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성을 Selinker(1972)는 화석화(化石化, fossilization)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제2언어 습득자가 제2언어의 완전한 언어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학습자의 내재된 규칙체계가 제2언어 규칙체계와 다른 단계에서 학습을 중단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제2언어 습득 시 학습자들이 중간언어에 안주하는 화석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한 제2언어 체계를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거시제 표현 습득에서 어떤 중간 언어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법 항목의 설정과 연구 대상이 되는 실험 조사대상자 설정 기준과 자료 수집의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구 순서도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모두 6단계의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시제 습득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 문항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두 인터뷰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 도구를 개발하였다. 자료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5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예비조사에 참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된 조사 방법으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3.2. 조사 연구 방법

3.2.1. 문법 항목 설정

2장에서 논의한 대로 한국어 과거시제 표현은 ‘기본형, 회상형, 관형절형’ 등 모두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과거시제임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 부사어 ‘어제’, ‘옛날’, ‘지난’ 등의 표현을 쓴 문장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과거시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도 발화와 질문 및 사진과 그림을 사용하였다. 사진은 한국 드라마 <풀 하우스>⁹⁾로 하고 그림은 중국의 전통 전설 <후예사일>(后羿射日)과 <항아분월>(嫦娥奔月)¹⁰⁾로 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문항에서 제시된 과거시제 목록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9) 풀 하우스는 2004년 7월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건축가 아버지가 지은 집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작가 한지은(송혜교 역)과 한류 스타 이영재(비 역)의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이다.

10) 옛날에 하늘에 해가 열 개 있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었다. 후예라는 남자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아홉 개의 해를 쏘았다. 그 이후에 하늘에 해가 하나만 남아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은 후예에게 선약을 상으로 주면서 후예의 아내 항아랑 나눠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후예가 외출한 사이 항아가 혼자서 그 선약을 다 먹어버렸다. 약을 먹은 후에 항아의 몸이 가벼워져서 달로 날아갔다. 후예가 집에 돌아왔지만 더 이상 항아를 볼 수 없었고, 음력 십오일이 되어 달이 휘영청 밝아질 때 항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십오일마다 후예는 항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자기 아내를 기념하였다. 항아는 혼자 달에 간후에 후예랑 떨어져고 살게 된 것을 매우 후회했다.

<표 1>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각 문항별 의도된 시제

문항 번호	제시된 과거시제 문항	문항 번호	제시된 과거시제 문항
1	-았-	12	동사+--(으)ㄴ
2	동사+--(으)ㄴ	13	-더-
3	-였-	14	-였었던
4	-았-	15	이+던
5	-었던	16	-었-
6	-었-	17	-던-
7	동사+--(으)ㄴ	18	-더-
8	-었던	19	동사+--(으)ㄴ
9	-었-	20	-더-
10	동사+--(으)ㄴ	21	동사+--(으)ㄴ
11	-었-	22	-더-

구두 인터뷰는 질문 면담, 드라마 장면 및 그림으로 나타낸 중국 전설 장면을 보며 이야기하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시제를 잘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제를 사용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11개 질문 가운데 3번, 5번, 7번, 8번, 11번 등 5개 질문 문항은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면담 질문지 내용

번호	질문 내용
1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2	한국에 올 때 중국공항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3	고향이 어디예요? 한국이 고향과 날씨가 많이 다른가요?
4	전공이 뭐예요? 왜 그 전공을 선택하셨어요?
5	한국에 안 왔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6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7	한국음식 어때요? 중국음식 그리워요?
8	한국 연예인 가운데 직접 본 적이 있는 연예인이 있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봤어요? 중국에서는요?
9	한국인 친구가 많아요, 중국인 친구가 많아요? 친구랑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10	중국이나 한국에서 사귀던 여자(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11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이랑 다른 점이 뭐였어요? 느낀 점이나 큰 차이를 말해 보세요.

다음으로, 드라마 <풀 하우스> 장면을 보여 주면서 질문으로 발화를 유도한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드라마 질문

번호	질문 내용
1	요즘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 많은데요. 혹시 한국 드라마 좋아하요?
2	(드라마 장면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드라마 봤어요? 그 내용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래요?
3	(드라마 장면을 제시하면서) 두 주인공이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4	이 장면들 아름답죠? 한국에서 어디 여행해 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중국 전통 전설의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 전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한다. 전설에 대한 질문 내용을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중국 전통 전설에 대한 질문 내용

중국의 전통 전설인 ‘후예사일(后羿射日)과 항아분월(嫦娥奔月)’의 그림을 보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3.2.2.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모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한다. 광주 광역시 소재 3개 대학 한국어 연수 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 82명을 선정하였으며, 한국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른 초급 18명, 중급 41명, 고급 23명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실험 참여자를 선정한 이유는 특정 기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영향으로 특정 문법 항목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해영, 2004:25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둘째, 조사대상자는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한족 한국어 학습자로 통제하였다. 이처럼 조사대상자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에서 한국어 교육 환경을 접하고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5> 조사대상자 정보

일반적인 특성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35	42.7
	여	47	57.3
한국어 학습 기간	6개월~1년	18	22.2
	1~2년	23	28.4
	3~4년	34	42.0
	5년 이상	6	7.4
한국어능력시험 경험 유무	예	44	53.7
	아니오	38	46.3
한국어 능력 수준별	초급	18	22.0
	중급	41	50.0
	고급	23	28.0
계		82	100.0

3.2.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서 2011년 3월 21일부터 2011년 4월 11일까지 3개 기관에서 82명

을 조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으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구두 인터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설문 조사 항목은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두 인터뷰는 질문(면담), 드라마 사진과 그림을 보고 중국전설 이야기하기 등으로 녹음기를 활용하여 구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3.2.3.1.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rality judgement test)¹¹⁾

문법성 판단 테스트¹²⁾는 학습자들이 문법 형태나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문어 형식이고 알맞은 문법 형태를 고르는 유형의 과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제시된 문항이 언어적 맥락, 즉 서법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이 테스트는 형태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질문 항목들 구성하였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지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¹³⁾. 문장의 정오를 판단하는 O/X문제의 경우 학습자가 답을 몰라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크고, 잘못된 부분을 골라 수정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자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지선다형으로 구성해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빈칸에 직접 알맞은 과거시제 형태를 쓰는 활용형 문제는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문법성 판단

11) 본 연구의 <부록 1> 참고.

12)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시행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어떤 언어 현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거나 또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말을 하는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구조는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자연적인 환경에서 이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연구자들조차도 연관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 자료를 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한 가지 문제점은 언어가 가지는 많은 다양성과 변이 현상에 있어서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동일한 연구 참여자 내에서도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변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학습자 개인의 언어 능력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언어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박경자, 1997; 신현정, 2006에서 재인용).

13) 과거시제 표현에 대한 문법 항목은 ‘-았-/-었-/-였-’에 관한 문제 1번, 3번, 4번, 6번, 9번, 11번, 16번 모두 7개 문항이다. ‘-더-’에 관한 문제는 13번, 18번, 20번, 22번 4개 문항이다. ‘동사+(으)ㄴ’에 관한 문제는 2번, 7번, 11번, 14번, 21번, 25번 6개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형용사/이다+ ‘-던’을 묻는 문제가 5번, 8번, 14번, 15번, 19번 5개 문항이고 문항의 순서는 모두 무작위로 구성하였다.

테스트의 항목은 주로 대화의 환경을 설정하고 과거시제에 대한 정확한 문법적 지식을 알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3.2.3.2. 구두 인터뷰¹⁴⁾

구두 인터뷰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는 달리 실험 조사 대상자는 연구자와의 1:1 인터뷰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비해 형태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과제 유형 중 하나이다.

구두 인터뷰는 ‘유도성 질문’, ‘드라마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기’, 그리고 ‘그림 보며 중국전설 이야기하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가장 일상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인터뷰 과제를 위한 질문으로는 조사 대상자들이 질문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인 수다를 떨듯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자신에 대한, 그러나 개인적이지 않은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즉 질문들은 조사대상자가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공부나 고향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과 한국에서 겪은 힘든 일 등을 말하게 하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3.2.4. 예비조사

본조사를 위해 고안한 과제들이 조사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한국인 모어 화자 2명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읽는 문항들을 수정하였으며 조선대학교 한국어학당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초, 중, 고급 학습자 각 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언어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문항들은 수정하였으며, 구두 인터뷰의 경우 과거시제 문법 항목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회상형 ‘-더-’나 관형형어미 ‘-(으)ㄴ/-던’을 사용한 발화를 충분히 유도하기 위한 질문과 그림을 만들었다.

14) 본 연구의 <부록 2> 참고.

3.2.5. 본조사

본 연구를 위해서 2011년 3월 21일부터 2011년 4월 11일까지 총 3개 기관에서 82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구두 인터뷰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조사대상자의 주의 집중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구두 인터뷰 조사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조사 대상자들이 실험이라는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다소 개인적이며 일상적인 대화문으로 이루어진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시간은 조사대상자당 평균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3.3. 자료 분석 방법

3.3.1. 유효화 기준

유효화 기준이란 수집한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이나 인터뷰 발화의 정·오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기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효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답을 두 개 표시한 것은 그중 하나가 맞더라도 오답처리하였다. 둘째, 시제오류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인터뷰 중에서 시제와 관련 없는 오류는 고려하지 않았다.

3.3.2. 통계 처리 방법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각 문항의 맞은 개수 및 정답률의 수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였다¹⁵⁾. 초, 중, 고급 조사대상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5) 본 연구의 통계는 조선대학교 컴퓨터 통계학과 이승우 박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학습자 수준별로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사후검정¹⁶⁾으로 다중비교¹⁷⁾를 실시하여 학습자 한국어 능력 수준별로 차이를 밝혔다.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p=0.05$ 에 이루어졌다.

16)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검정을 실시한다. 사후 검정은 여러 집단 중 어느 집단의 조합이 이질성을 띠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최선영, 2005).

17) 본 연구에서 사후 검정을 위해 사용한 다중 비교 방법으로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Scheffe는 두 처리 집단 간의 비교를 하며 반복수가 같지 않은 경우에 서로 비교해 보는 검증방법이다.

4. 한국어 과거시제에 대한 중간언어 양상 분석

본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과거시제에 대한 중간언어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라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과거시제의 유형별로 정답률을 살펴본 다음, 구두 인터뷰 결과 나타난 중간언어 양상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4.1. 통계 처리 결과

4.1.1. 기본형 ‘-았/었/였-’

문법성 판단 테스트(설문 조사)에서 22개 문항 중에서 기본형은 7문항을 선정하였다.¹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별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어 능력 수준별 ‘-았/었/였-’ 정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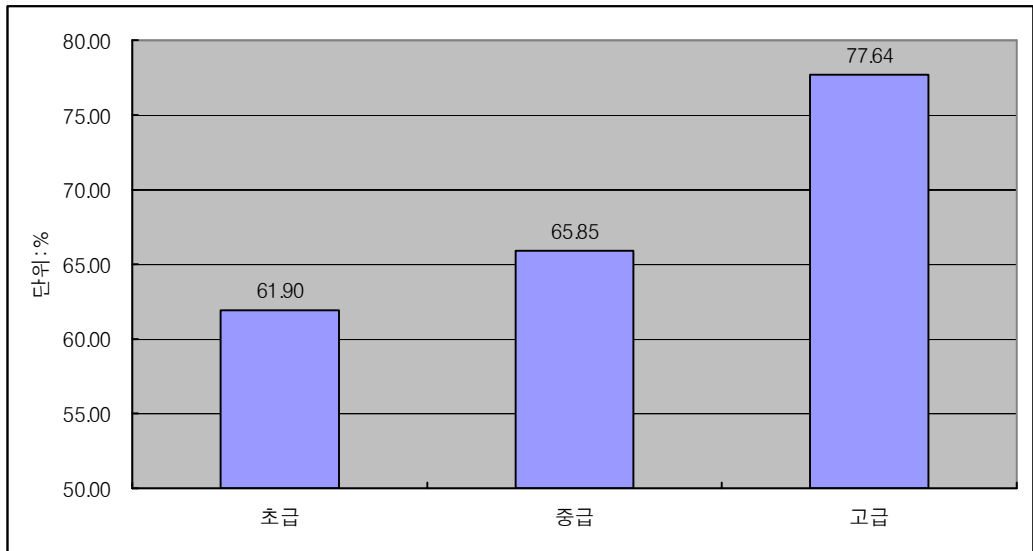
수준별	평균(M)	표준편차(SD)	통계량(F)	유의 확률(p)
초급	61.90	20.789	4.209	0.018*
중급	65.85	20.672		
고급	77.64	12.796		

* p<0.05,** p<0.01, *** p<0.001

위의 <표 6>은 ‘-았/었/였-’ 시제에 대한 정답률을 한국어 능력 수준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통계량 F= 4.209, 유의 확률 p는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아 수

18) 설문문항 가운데 기본형(‘-았/었/였-’)에 대한 문항은 1번, 3번, 4번, 6번, 9번, 11번, 16번 등 7개이다.

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한국어 능력 수준별 ‘-았/었/였-’ 정답률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과거시제 기본형 ‘-았/었/였-’에 대한 초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61.90%로 나타났고 중급 학습자는 65.85%, 고급 학습자는 77.6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과거시제 기본형에 대한 문법적 성취에서는 초급자도 중급자와 큰 차이 없이 적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어에서 이미 기본형 과거형 대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급단계로 넘어가면서 문법적 정확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4.1.2. 회상형 ‘-더-’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항 22개 가운데 회상형 ‘-더-’를 묻는 문항은 모두 4개였다.¹⁹⁾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별 정답률은 다음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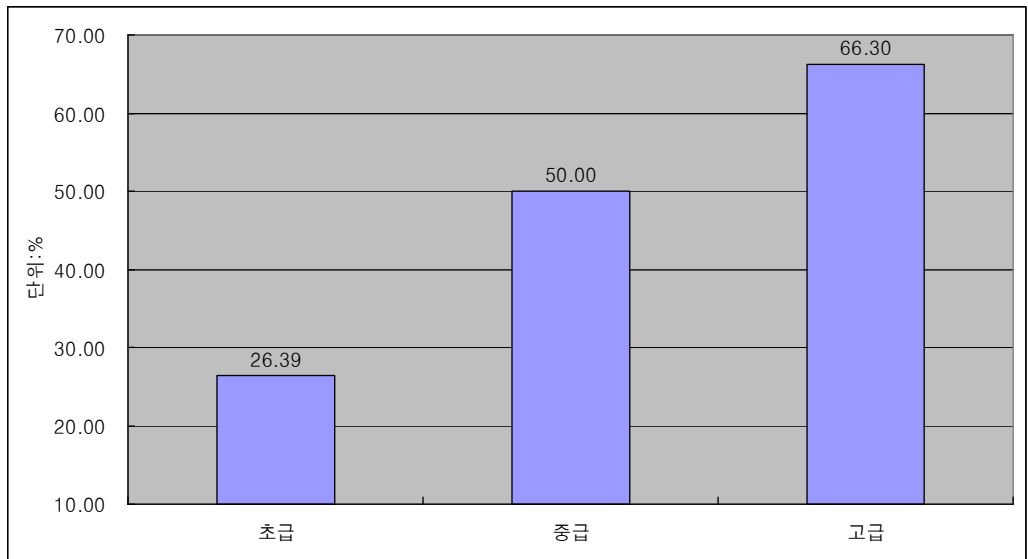
19) 설문문항 가운데 회상형 ‘-더-’에 대한 문항은 13번, 18번, 20번, 22번 등 4개이다.

<표 7> 한국어 능력 수준별 ‘-더-’ 정답률

수준별	평균(M)	표준편차(SD)	통계량(F)	유의확률(p)
초급	26.39	20.059	8.923	0.000***
중급	50.00	34.911		
고급	66.30	26.766		

* p<0.05,** p<0.01, *** p<0.001

위의 <표 7>는 ‘-더-’ 시제에 대한 한국어 능력 수준별 정답률의 결과이다. 통계량은F= 8.923, 유의 확률 0.000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한국어 능력 수준별 ‘-더-’ 정답률

[그림 7]에서 보듯이, 회상형 ‘-더-’에 대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답률은 각각 26.39%, 50%, 66.30%로 나타나고 있다. 초급과 중급, 초급과 고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급 단계에서 회상형 ‘-더-’를 학습하지 않

았기 때문에 제일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더-’의 경우 각 조사 집단에서 모두 정답률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상형‘-더-’가 중국인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1.3. 관형사형 ‘-(으)ㄴ/ -던’

4.1.3.1. 동사+‘-(으)ㄴ’ 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항 22개 가운데 관형사형에 대한 문항은 6개 문항이었다.2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별 정답률은 다음 <표 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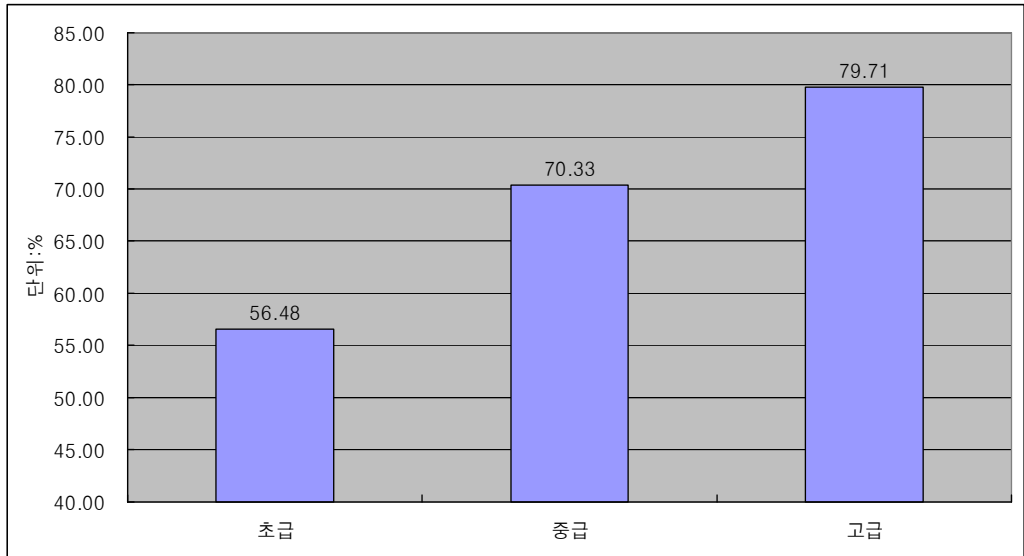
<표 8> 한국어 능력 수준별로 ‘동사+-(으)ㄴ’ 정답률

수준별	평균(M)	표준편차(SD)	통계량(F)	유의 확률(p)
초급	56.48	19.917	5.276	0.007**
중급	70.33	25.142		
고급	79.71	20.073		

* p<0.05,** p<0.01, *** p<0.001

위의 <표 8>은 동사+-(으)ㄴ’ 시제에 대한 한국어 능력 수준별 정답률의 결과이다.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학에서 유의한 차이가 다고 한다. <표 8>에서 유의 확률은 0.007보다 더 작으니 ‘동사+-(으)ㄴ’ 시제에 대한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9]과 같다.

20) 설문문항 가운데 관형사형 중에서 동사+‘-(으)ㄴ’ 형에 대한 문항은 2번, 7번, 11번, 14번, 21번, 25번 등 6개이다.



[그림 8] 한국어 능력별 ‘동사+-(으)ㄴ’ 정답률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관형절 ‘동사+-(으)ㄴ’에 대한 초·중·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각각 56.48%, 70.33%, 79.71%이다. 초급과 중급 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급 단계는 고급 단계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4.1.3.2. 형용사/이다 + ‘-던’

문법성 판단 테스트 문항 22개 가운데 형용사/이다+‘-던’에 대한 문항은 5개 문항이었다.²¹⁾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별 정답률은 다음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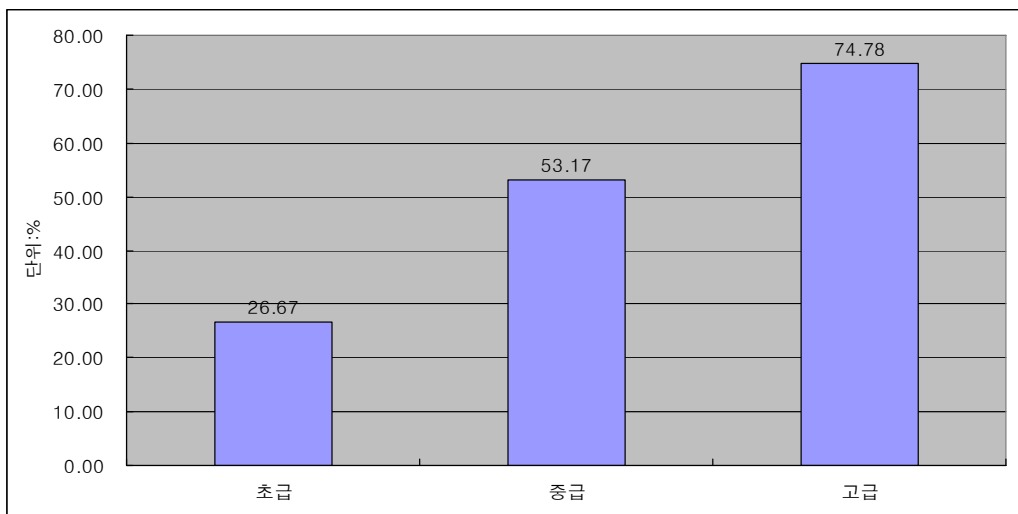
21) 설문문항 가운데 관형사형 ‘형용사/이다 +던’형에 대한 문항은 5번, 8번, 14번, 15번, 19번 등 5개이다.

<표 9> 한국어 능력 수준별 ‘형용사/이다+던’ 정답률

수준별	평균(M)	표준편차(SD)	통계량(F)	유의 확률(p)
초급	26.67	26.568	20.680	0.000***
중급	53.17	25.927		
고급	74.78	16.200		

* p<0.05,** p<0.01, *** p<0.001

위의 표는 형용사/이다+‘-던-’ 시제에 대한 한국어 능력 수준별 정답률의 결과이다. p는 0.001보다 더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한국어 능력 수준별 ‘형용사/이다+던’ 정답률

위의 그림과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형용사/이다+던’ 정답률은 26.67%, 53.17%, 74.78%로 각각 나타났다. 고급의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에 따른 초급과 중급, 초급과 고급, 중급과

고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구두 인터뷰 결과

구두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과거시제 표현의 오류는 크게 ‘문장종결 표현, 연결어미, 관형절’의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초급 학습자의 경우 문장종결 표현에서 과거시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결어미에서 과거시제 오류는 2회 나타났고,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형절에서 과거시제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아직 V+‘(으)ㄴ’, A/이다+ ‘-던’ 등의 문법항목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는 세 경우에서 다 오류가 나타났는데, 오류의 유형이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문장종결 표현에서 나타나는 오류보다 연결어미와 관형절에서 더 많이 각각 6회의 과거시제 오류를 보였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오류율이 가장 낮았는데, 연결어미에서는 오류가 1회만 나타났고 문장종결 표현에서 3회, 관형절에서 2회의 오류가 나타났다.

이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나타난 단계별 오류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한국어 능력 수준별 오류 현황 (해당 숫자는 오류 횟수임.)

오류유형 \ 수준별	초 급	중 급	고 급
문장종결에서 과거시제 오류	10	3	3
연결어미에서 과거시제 오류	2	6	1
관형절에서 과거시제 오류	×	6	2

한편, 과거시제 표현에 있어 오류를 보였던 동사와 형용사를 제시하면 아래 <표

12>과 같다.

<표 11> 과거시제 표현 오류

수준별 오류 유형	초급	중급	고급
문장종결	*싫다, *공부하요, *있어요 *했어요, *만나요, *좋아요, *참아요, *사라져요, *편해요, *쏘아요,	*많아요, *없어요, *먹었었요.	*그리웁니다. *없습니다. *고 통스럽었 어 요.
연결어미	*사랑했어서, *나누었어	*있었도록, *좋았 지만, *먹더니, *온는 데, *가더니, *오면	*가벼어지고
관형절	X	*가보는, *재미있 는, *있었는, *쓰는 *좋았었던	*요리하였던 *갔었었던

4.2.1. 초급 학습자의 중간언어 양상

4.2.1.1. 문장종결 표현에서의 과거시제 오류

초급 학습자는 문장종결 표현에서 과거시제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다. 이와 같은 오류는 동사와 어미가 결합할 때 잘못 변화시키거나 시제의 혼란이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두 인터뷰 결과 나타난 과거시제 오류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Q: 한국에 올 때 중국공항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A: 한국에 가서 공부 잘해서 대학원생이 되고 *싫다(싶었어요).

(14) Q: 한국에 안 왔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如果沒來韓國的話，你現在可能在做什么呢？

- a. 아마 대학교에 *공부해요 (공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我可能在大學學習呢。
- b. 아마 취직하고 *있어요(있었을 것 같아요).
可能在工作吧
- c. 취직 *해요(했을 것 같아요).
我可能在工作呢。

(15) Q: 두 주인공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 a. 두 주인공이 상해에 가는 비행기에서 *만나요(만났어요).
- b.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요(좋았어요).

(16) 너무 더워서 사람을 못 *잡아요(잡았어요).

(17) 하늘에 태양가 10개 있어서 사람이 *쏘아요(쏘았어요).

(18) 아홉 개 태양을 *사라져요(사라졌어요).

(19) 그래서 세상에 *편해요(편해졌어요).

문장종결 표현에서 과거시제 오류를 보인 서술어는 ‘싶다, 공부하다, 있다, 하다, 만나다, 좋다, 참다, 쏘다, 사라지다, 편하다’ 등 10개이다. (13), (14)는 일반적 유도 질문에서 나타난 오류이고, (15)는 사진-드라마 장면 중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16)~(19)는 전통 전설 중에서 나타난 오류 예문인데, 모두 과거시제로 표현해야 하는데 현재시제로 표현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특히 (17)은 본 질문자가 과거 사건을 가정하는 ‘-있었을 것 같아요?’를 써서 질문하였는데, 중국인 학습자는 과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나타내는 ‘-(으)ㄴ 것’도 쓰지 못했다. 오로지 현재시제로만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으)ㄴ 것’은 한국어에서 미래시제 선어말어미인 ‘-겠-’과 더불어 추측이나 가정을 나타내는데 과거시제와 더불어 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의 경우, 예상이나 추측의 ‘可能(아마)’는 ‘...在...呢’와 더불어 쓰이는데 현재시제만으로도 미래의 가정을 의미할 수 있다. 즉, (14)에 나타난 오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

어 간섭 때문이다.

4.2.1.2. 연결어미에서의 과거시제 오류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보이는 연결어미에서의 과거시제 오류는 주로 ‘-았’을 쓰지 말아야 할 때 ‘-았’을 씌으로써 나타났다. 오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20) Q: 두 주인공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A: 두 주인공이 *사랑했어서(사랑해서) 공항에서 만났어요.

(21). Q: 중국의 전통 전설인 ‘후예사일(后羿射日)과 항아분월(嫦娥奔月)’의 그림을 보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하느님이 후예에게 선약을 주었다. 그러면서 후예의 부인 항아랑 *나누었어(나누어서) 먹으면 영생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20)은 사진-드라마 장면을 보고 이야기할 때 나타난 오류이고, (21)은 그림-전설 중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연결어미에서 과거시제 오류를 나타낸 서술어로는 ‘사랑하다, 나누다’가 쓰였다. 중국어에서는 겹문장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제를 일치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예문 (20)과 (21)은 이러한 모국어 문법 지식에 의해 오류를 보인 것이다. 종속적 연결어미의 이어짐의 제약 중에서 ‘-어서’의 경우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서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사랑하- + -었- + -어서’, ‘나누-+ -었- + -어서’의 형태로 결합하여 오류를 보였다.

4.2.1.3. 관형절에서의 과거시제 오류

관형절에서의 초급 학습자의 과거시제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초급 단계 학습자가 아직 관형절을 배우기 않았기 때문이다.

4.2.2. 중급 학습자의 중간언어 양상

4.2.2.1. 문장종결 표현에서의 과거시제

중급 학습자의 경우는 초급 학습자에 비해 문법 지식을 더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처럼 문장종결 표현에서 과거시제 오류를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 대신 오류의 유형이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Q: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이랑 다른 점이 뭐였어요?

A: 식사 먹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아요(많았어요).

(23) Q: 한국에 올 때 중국에서 공항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A: 그냥 생각이 조금 *없어요(없었어요).

(24) Q: (드라마 장면 보고)두 주인공이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A: 상해에 가는 비행기에서 송혜교와 비가 만났어요. 송혜교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탔는데, 밥을 많이 *먹었었어(먹었어요).

(22)와 (23)은 일반적 유도 질문 중에서 나타난 오류이고 (24)는 사진-드라마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타난 오류이다. 문장종결에서 과거시제 오류가 나타난 서술어로는 ‘많다, 없다, 먹다’ 세 가지이다. 특징으로는 (24)의 예문에서 과거 표현으로 ‘-있었-’이 나타난 점이다. (24)의 예문을 말한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첫 문장의 종결 표현 ‘만났어요’와 연결어미 ‘탄는데’에서는 과거시제를 잘 나타내었으나, 마지막 문장종결 표현에서는 ‘먹었어요’ 해야 할 것을 *‘먹었었어’의 과거로 표현하였다. 선행절의 비행기를 탄 사건이 후행절의 밥을 먹은 사건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여기서는 대과거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중급 학습자의 경우 대과거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있었-’을 한국어 문법 습득 과정에서 배웠지

만,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직 과거시제 표시‘-았었’과 ‘-았-’를 명확히 구분하여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그리고 존대법에서 (24)의 첫 문장은 해요체로 잘 표현하였지만 두 번째 문장은 해체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존대법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상 정확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의 경우 과거를 가르치는 데 있어 그 사용 용례와 문법적 지식을 실용 예문을 통해서 익히도록 지도하고 존대법의 경우는 예컨대 상황극을 통한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학습자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4.2.2.2. 연결어미에서 과거시제 오류의 경우

연결어미에서는 의외로 중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보다 오류를 더 많이 범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는 ‘-았’을 쓰지 말아야 할 경우 ‘-았’을 써서 오류 문장을 만들어 낸 경우도 있고, 연결어미 앞에서 ‘-았’을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아서 생긴 오류도 보인다. 다음이 그 예이다.

(25) Q: 전공이 뭐예요? 왜 그 전공을 선택하셨어요?

a. 한국어 선생님 될 수 *있었도록(있도록) 한국어 전공을 선택했어요.

b.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았지만(좋아했지만),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국어 전공을 선택하고 국문학과에 왔어요.

(26) Q: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A: 한국음식이 잘 못 *먹더니(먹었더니) 건강이 *나뻤어요(나빠졌어요).

(27) Q: 친구랑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A: 친구랑 백화점에 갔는데, 옷 사러 *가더니(간 것이) 재미있었어요.

(28) Q: 한국에서 연예인 중에 누구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A: 조인성이 학교에서 *온는데(왔는데), 키가 정말 컸어요.

(29) Q: 한국에서 어디 여행해 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A: 여행사를 따라서 *가는데(갔는데) 하루 종일 구경하느라고 다리가 아팠어요.

위의 (25)~(29)는 모두 일반적 유도 질문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중급 학습자의 연결어미에서 과거시제 오류가 쓰인 서술어는 ‘있다, 좋다, 먹다, 나쁘다, 가다, 오다’의 6가지이다. 연결어미로는 ‘-도록, -지만, -(으)니, -는데, -니까’가 나타났으며 연결어미에서 과거 회상시제 선어말어미 ‘-더-’가 쓰인 것이 특징이다. (25a)의 ‘-도록’의 경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종속적 연결어미의 제약에 대해 모르는 중국어 학습자는 과거시제를 표현하기 위해 ‘-었-’을 결합한 오류를 보였다.

(25b)의 예문은 연결어미에서 ‘*좋았지만’을 쓴 오류인데, 이것은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다.’의 문장에서 ‘좋아하다’가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라는 것을 학습자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거나 혹은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았지만...’이 원래 표현하고자 한 문장인데 목적격 조사와 주격 조사와의 쓰임을 혼동함으로써 나타난 오류라고 본다.

(26)의 경우 목적격조사 ‘-(으)ㄴ’이 들어갈 자리에 주격조사 ‘-이’가 쓰여 조사 쓰임에 있어 혼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6), (27)의 연결어미에서 회상시제 선어말어미 ‘-더-’가 쓰이는데 학습자는 ‘-더-’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것만을 알 뿐 그 쓰임과 제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회상시제 선어말어미 ‘-더-’는 대개 문장에서 주어가 1인칭일 경우 쓰이지 못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30) a. 내가 학교에 *가더라.

b. 내가 밥을 *먹더라.

(31) a. 꿈속에서 내가 날아가더라.

b. 내가 방에 들어가 보니 꽤 춥더라.

(30)은 한국어에서 주어가 1인칭일 때, 회상시제 선어말어미 ‘-더-’가 쓰이지 못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어가 1인칭이어도 ‘-더-’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31)에서 보듯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하거나 1인칭 주어의 주관적 심리·느낌을 표현할 때는 ‘-더-’를 쓸 수 있다.

한편, 예문(26)의 문장종결 표현에서 ‘나빠졌어요’가 아니라 “*나빴어요”가 쓰인 점도 특이한 점인데, 이는 학습자가 과거시제를 써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피동표현 ‘-어지다’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없어 피동이 아닌 주동으로 표현한 오류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피동이나 사동표현 역시 한국어 모국어 화자도 오류를 자주 범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이러한 문법적 지식을 전달할 때는 용례를 통한 올바른 쓰임과 제약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28)과 (29)의 경우, 종속적 연결어미 ‘-는데’에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었-’을 결합하지 않아 오류가 나타났다. 특히 (28)의 경우, ‘왔는데’가 아니라 “*온는데”가 쓰였는데,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관형절에서 과거시제를 나타낼 때 동사의 경우 ‘-(으)ㄴ’을 붙여 쓴다는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결어미에까지 확대 적용해서 나타난 오류라고 본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연결어미와 관형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오- + -았-’이 결합하여 축약된 ‘-왔-’이 쓰인다는 점을 말해준다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2.2.3. 관형절에서의 과거시제 오류

관형절에서 과거시제 오류는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없고 중급 학습자 중에서 처음 나타났다. 인터뷰조사 결과 중에서 관형절에서 오류가 나타난 서술어로는 ‘가보다, 재미있다, 놀고 있다, 일하고 있다, 쓰다, 좋아하다’ 등 6가지이다. 중급 학습자들은 관형절에서 나타난 과거시제 오류의 경우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32) Q: 친구랑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 a. 그냥 이야기 했을 때 같이 *가보는(가본) 놀이공원이 좋았어요.
- b. 같이 밥 먹고 영화보고 *재미있는(재미있었던) 일이 많았어요.

(33) Q: 한국에 안 왔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a. 아마 중국에서 공부하고 놀고 *있었는(있을) 것 같아요.

b. 아마 중국에서 일하고 *있었는(있을) 것 같아요.

(34) Q: 중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사귀던 여자(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좀 얘기해 주세요.

A: 한국에서 남자친구가 잘해줬는데, 허허, 난 안경 *쓰는(쓴) 남자가 좋았어요.

(35) Q: 중국의 전통 전설인 ‘후예사일(后羿射日)과 항아분월(嫦娥奔月)’의 그림을 보세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A: 그래서 15일마다 후예가 항아가 *좋았었던(좋아했던) 음식을 내고 자기 아내를 그리워했다.

위의 예들 가운데 (32)~(35)는 유도 질문 인터뷰 중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32a), (32b), (34)의 경우, 과거시제로 표현해야 하는데 현재시제로 관형절을 나타낸 것이다. 모두 관형절에서 ‘-은’을 붙여 과거를 표현하지 않고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는’을 붙여 표현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관형절에서 과거시제 표현을 할 때는 동사·형용사에 모두 ‘-(으)ㄴ’을 붙여야 한다.²²⁾ 여기서 (32b)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재미있었던’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회상의 시제 ‘-던’이 결합해야 하는 문법적 지식이 중급 학습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3a), (33b)의 경우, 미래시제 ‘-(으)ㄹ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학습자가 *‘있었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의존명사 ‘-것’을 꾸미는 미래시제 관형형어미로 ‘-(으)ㄹ’이 있다는 것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없어서 오류를 범했다. 여기서 과거시제 ‘-었-’이 나타난 것은 질문자의 선행절에서 ‘한국에 안 왔으면...’이라고 과거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과거시제로 인식한 학습자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관형형어미 ‘-는’을 결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22) 한국어 관형절에서 현재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에는 ‘-는’을 붙이고, 형용사에는 ‘∅(영표지)’로 표현해야 한다.

(35)는 중국 전통 전설 이야기 중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35)는 관형절에서 과거 '-었었-'과 회상시제 '-던'이 나타난 것이 특징인데 중급 학습자의 관형절에서 처음으로 '-던'이 나타났다. 또한 오류를 범한 학습자의 경우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문법적 인식 부족으로 “*좋았었던’ 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항아가 *좋았었던(좋아했던) 음식’을 바꾸어 보면 ‘항아가 음식을 좋아하다.’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좋아하다’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서술어 자릿수와 각 문장 성분과 결합하는 조사에 대한 문법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 본다.

4.2.3. 고급 학습자의 중간언어 양상

4.2.3.1. 문장종결 표현에서의 과거시제 오류

초급이나 중급보다 한국어 능력수준이 높은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예상보다는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 (36) Q: 한국에 올 때 중국공항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a.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없었습니다).
 b. 어머니를 *그리웁니다.(그리워했습니다).

- (37) A: 항아를 볼 수 없어서 *고통스럽었어요(고통스러웠어요).

(36)은 유도 질문 인터뷰 중에서 나타난 오류이고 (37)은 중국 전통 전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오류이다. 문장종결에서 과거시제 오류를 나타낸 서술어로는 ‘없다, 그립다, 고통스럽다’ 세 가지이다. 여기서는 ‘ㄹ-불규칙 용언’이 쓰인 것이 특징인데, 불규칙용언의 활용은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36b)의 예문은 중국인 학습자가 ‘그립다’라는 형용사 다음에 어미

를 ‘-습니다’가 아닌 ‘-(으)ㅂ니다’로 인식하여 ‘그리우- + -ㅂ니다’ 형태인 ‘*그리웁니다’가 된 것이다.

또한 (37)의 ‘*고통스럽었어요’는 중국인 학습자가 ‘ㅂ-불규칙 용언’이 모음어미가 뒤에 왔을 때 어간의 끝 자음 ‘ㅂ’이 반모음 ‘w’로 변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기본형 그대로 발음해 버린 오류이다.

‘과거 지속’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는 시간부사어들은 ‘때, 간, -까지,’ 등으로 구성된 것들이 많다. 이러한 시간부사어들은 어떤 한 순간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강홍, 2010). 따라서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에게 시제표현에 대해 설명할 때 시간부사어들을 시제선어말어미와 함께 제시하여 설명하고 불규칙 용언의 형태변화에 대해 실용 예문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면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이 될 것이다.

4.2.3.2. 연결어미에서의 과거시제

연결어미에서 나타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시제 오류는 하나밖에 안 보였다. 다음이 예이다.

(38) A: 항아가 약을 먹은 후에 몸을 *가볍어지고(가벼워지고) 달로 날아갔어요.

위의 예문은 중국 전통 전설을 보고 이야기할 때 나온 오류이다. 연결어미에서 과거시제 오류를 나타낸 서술어로는 ‘가볍다’ 1가지이다. 앞서 문장종결에서 나타난 과거시제 오류 중 ‘그렵다’, ‘고통스럽다’와 마찬가지로 (38)에서도 ‘가볍다’라는 ‘ㅂ-불규칙 용언’이 쓰였는데 어간 끝 자음 ‘ㅂ’이 모음과 결합에서 반모음 ‘w’로 변한다는 문법적 활용을 중국인 학습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의 용례를 실생활의 장면과 연관지어 설명한다면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중급 학습자와는 달리 고급 학습자는 피동형 ‘-어지다’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 학습에 있어 고급 수준의 학습자의 경우 피동형에 대한 문법적 인식이 어느 정도 자

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4.2.3.3. 관형절에서의 과거시제 오류

중국인 학습자에게 관형절에서 쓰이는 과거시제의 습득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결코 용이하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높지만 관형절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9) Q: 친구랑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A: 한국 친구랑 떡볶이를 *요리하였던(요리했던)일이 재미있었어요.

(40) Q: 한국에서 어디 여행해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 이유는요?

A: 한국에서 제주도에 M.T를 *갔었었던(갔었던) 적이 있는데, 자연경관이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좋았어요!

(39)와 (40)은 유도성 질문 인터뷰 중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관형절에서 과거시제 오류를 보이는 서술어로는 ‘요리하다, 가다’ 2가지이다. (39)의 예문의 경우, 어간 ‘하다’ 뒤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쓰이고 있는데 이 경우 축약되어 ‘해-’가 되거나 뒤에 ‘-었-’이 아니라 ‘-였-’의 형태로 써야 한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하다’ 어간이 모음과 결합할 때 활용하는 ‘여’ 불규칙 활용이나 ‘하다’의 어간 ‘ㅏ’와 뒤의 ‘ㄷ’가 화합하여 ‘ㅏ’가 된다는 문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유지한 채로 발음하여 오류를 보였다.

(40)의 경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3번이나 나타나 “*갔었었던” 으로 표현되었는데 한국어에서 과거 형태소 ‘-었었-’을 배운 중국인 학습자가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데 있어 ‘갔다’ 자체에 ‘가-+ -았- + 다’로 과거시제가 이미 1번 쓰인 사실을 몰라서 그 뒤에 ‘-었었-’을 붙여버린 오류이다. 형태론적 분석과 함께 과거가 지니

23) 실제로 본 연구자가 구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고급 학습자의 경우(丘繼承, 孙成英) ‘-어지다’뿐만 아니라 다른 피동표현에서도 문법적 오류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 “제가 한국에 오게 돼서 매우 기뻐했는데.....”

“한국 날씨는 중국 날씨에 비해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는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올바른 과거시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 ‘자연경관(自然景觀)’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초급과 중급 학습자들에게서는 나오지 않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5. 결론 및 제언

시제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어떤 시점에 있었는지, 같은 문장 속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나 행위가 나타나 있을 때 그들 사이의 시간상의 앞뒤 관계가 어떠한지를 문법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05:193). 한국어의 경우는 시제 표현에 있어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서 과거-현재-미래 시제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문법적 특징을 아는 것은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간언어로서 나타난 과거 시제 표현의 오류 양상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광주 광역시 소재 3개 대학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및 호남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언어 연수생, 일반 학부생 및 대학원 중국인 학습자들 — 초급(18명), 중급(41명), 고급(23명) — 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직접 면담에 의한 질문 조사와 그림을 통한 구두 인터뷰 녹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과거시제에 대한 전체 문항에 대한 정답수가 적고 정답률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특히 회상형의 ‘-더-’와 관형절형의 정답률은 각각 26.39%와 26.67%이다.

둘째, 중급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습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들보다 문항의 정답수와 정답률이 더 높았다. 특히 기본형과 회상형의 습득은 고급 학습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초급과 중급 학습자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모두 70% 이상을 보였고, 각 문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두 인터뷰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 학습자의 경우 문장 종결표현과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과거시제 표현

의 오류가 나타났다. 문장 종결표현에서 모두 과거시제로 표현해야 하는데 현재시제로 표현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질문자가 과거의 사건을 가정하는 ‘있었을 것 같아요?’를 사용한 질문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는 과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나타내는 ‘-(으)르것’도 쓰지 못했다. 중국어에서 겹문장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제를 일치해야 하는 규칙의 영향을 받아 연결어미에서 오류를 많이 보인 것이다. 초급 학습자의 관형절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학습자가 초급 단계 중에서 아직 관형절을 배우기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급 학습자의 경우 문장 종결표현과 연결어미, 관형절의 세 가지 범주에서 모두 과거 시제 표현의 오류가 나타났다. 특히 대과거 표현으로 ‘-있었-’이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대과거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있었-’을 한국어 문법 습득 과정에서 배웠지만,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과거와 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단계인 중급 학습자에게서 과거시제 오류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고급 학습자의 경우 과거시제 오류는 문장종결, 연결어미, 관형절에서 나타났는데 주로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 오류를 보였다. 불규칙 용언의 형태 변화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문법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다. 또한 관형절에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3번이나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는 축약된 어간 속의 과거시제 형태소를 분석하지 못하고 대과거를 나타내는 ‘-있었-’을 써 버린 결과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가 한국어 과거시제를 처음 학습할 때 기본형 ‘-았/었/였-’에 대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과거시제를 가르칠 때 선행 환경에 따른 이형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줘야 한다. 특히, 형태 변화에 약한 중국인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았’에는 ‘-었’, ‘-였’ 등 여러 가지 이형태가 있음을 숙지시켜 주되, 특히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의하여 ‘쓰’이 붙는 상황에 대해서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초급 학습자가 모국

어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중 시제의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사의 변화 형태에 초점을 맞춘 기계적 연습 후에는 반드시 학습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의적 연습을 실시해야 한다. 교사가 ‘지금, 오늘’ 혹은 ‘어제 저녁에, 지난 주말에’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하면 학습자가 그에 맞는 시제로 바꿔 대답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노래를 불르고 있는 사진을 보여 주면서 ‘지금 무엇을 해요?’라고 물으면, 학습자가 ‘노래를 불러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지난 주말에’ 카드를 보여주면서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라고 물어보면, 학습자가 ‘노래를 불렀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급 단계 학습자는 어휘 및 문법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계보다 특히 더 다양한 오류를 보이고 있는바, 시제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중급 학습자가 연결어미나 관형절에서 과거시제 오류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연결어미를 결합할 경우나 관형형 어미를 결합할 경우에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고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필수적인 지식이나 어휘를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에 주의하면 된다. 오류 방지 차원에서 기존의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오류 문장들을 미리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정하고 발전시켜 가는 중간언어를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여러 가지 문형들 중 과거시제 표현과 관련된 오류를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어 능력 수준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위한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과거시제의 중간언어 양상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나, 과거시제가 중간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시제뿐만 아니라 현재시제나 미래시제의 중간언어 양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희숙(2010),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출판사.
- 김진우(2002), 『제2언어 습득연구』, 한국문화사.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이해영 외(2005),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개정판, 박이정.
-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태학사.
- Muriel Saville-Troike 지음, 임병빈 외[공]역(2008), 『제2언어 습득론』, 세진무역.

【논문】

- 강홍(2010), 「한중 시제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숙(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연구」,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pp.249~276.
- 김목아(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중간언어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1994),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말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3~244.
- 김성란(2010), 「중국어권 학습자의 과거 시제 사용 오류 분석-“-았-”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pp.137~156.
- 김유미(2000),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욱(2005),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표현 문법형태의 용법별 중간언어 연구」, 『언어과학연구』 32, 언어과학회, pp.89~108.
- 김정숙 · 남기춘(2002),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분석과 교육방법」, 『한국어교육』 13-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7~46.
- 김정은(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중간언어 오류분석」,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28.
- 김정은(2004), 「일본어권 학습자의 조사 오용 양상」, 『한국어교육』 15-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2.
- 김진우(2002), 「제2어 습득연구 현황과 전망」, 『한국문화사』.
- 나은영(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중급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pp.27~45.
- 남수정(2010),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중간언어 연구: 격조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민현식(2007), 「국어 교육학과 문법 교육」, 『언어학과 문법 교육』, 역락, pp.13~102.
- 박경자(2000), 「영어교육에서 중간언어의 중요성」. 『영어어문교육』 6,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pp.113~142.
- 박천웅(2006), 「지역사회와 다문화공동체 교육」.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pp.71~99.
- 법무부(2011), “체류 외국인 100만명 돌파!” 법무부.
- 평쉬통(2011).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거시제 표현 교육 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지연(2002),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정(2006), 「한국어 학습자들의 ‘-겠-’과 ‘-(으)르 것이’ 사용에 나타난 중간언어 변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화(2003), 「중간언어 어휘를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pp.167~186.

- 이은경(1999), 「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2004), 「한국어 학습자연어에 나타난 ‘-어서’와 ‘-니까’의 변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1), 「한국어 학습의 시제 오류연구」,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pp.259~278.
- 이해영(2003a),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오류 연구」,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pp.259~278.
- 이해영(2003b),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표현 문법항목 발달패턴 연구」,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pp.271~300.
-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이지혜(2010),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표현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운비(2009), 「한국어 시제 형태소 ‘-었’의 기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 단(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제12차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문.
- 왕 단(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연구』 16, 한국국어교육학회.
- 왕 방(2007),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권(2010), 「한국어 의문문 습득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근(2007), 「과제 유형에 따른 중간언어 변이 연구-중국어권 학습자의 조사 ‘을/를’ 습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철현 외(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2002년도 문화관광부 국어정책 공모과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지성녀(2007), 「한중 시제 대조 연구: ‘-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우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영(2005), 「학습자 오류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가: 일본어권 중·고급 학습자의 오류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경희(2001), 「과제 유형 따른 중간언어 변이: 형태소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羅遠惠(2001), 「現代漢語“了”在韓國語中的對應」, 中韓人文學研究.

孫玉慧(2010), 「韓國語時態與教學」 嘉興學院. 中文分類 H319.9 文章編號:1009-4067

Brown, D.(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Pearson Education. 이홍구의 역,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피어슨 에듀케이션코리아.

Corder, S.P.(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Ellis, R.(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김윤경 역. 1998 「외국어 습득론」, 한국문화사.

Nemser, N. (1971), 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RAL, 9, Selinker, L.(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201-231

Susan, M. Gass & Larry, Selinker(2000),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2th Ed.

Williams, J.(1999), “Memory attention and inductive learn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1(1), pp.1~48.

<부록 1>

한국어 과거시제 습득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지

이 설문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과거 시제 표현에 대한 중간 언어 양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은 시험이 아니므로, 정답이나 오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문항들과 관련된 언어적 사실이나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이 연구 결과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3. .

연구자: 조선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장웨이

此问卷是关于中国学生在韩国语过去时态的学习过程中,以出现的中介语现象为目的的调查研究。因为这不是考试,正确或错误之分并不是特别的重要,只要是通过所学习的知识做出认为正确的判断即可,大家真实的答案将是取决定研究成败的重要因素,对大家的合作,表示深深的感谢。

※ ____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A: 어제 무엇을 했어요?

B: 동생과 ____.

- a. 놀아요 b. 놀았어요 c. 놀겠어요 d. 놀아 주세요

2. 나는 중국에서 ____ 유학생 장웨이이다.

- a. 오는 b. 온던 c. 올 d. 온

3. A: 강 교수님 계신가요?

B: 아니요, _____.

- a. 외출하시고 있어요 b. 외출하셨어요 c. 외출하실 거예요 d. 외출하시겠어요.

4. 친구들과하고 제주도에 갔는데 정말 _____.

- a. 좋아요 b. 좋았어요 c. 좋을 거예요 d. 좋겠어요

5. 우리가 같이 _____ 사진을 분명히 버렸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 a. 찍었던 b. 찍겠는 c. 찍을 d. 찍었는

6. 어제 돼지고기를 _____ 오늘은 다른 것을 먹자.

- a. 먹었으니 b. 먹으니 c. 먹었어서 d. 먹어서

7. 그 책을 읽_____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였다.

- a. 는 b. 은 c. 었은 d. 었는

8. 내가 제일 _____ 남자는 바로 바람둥이였다.

- a. 싫어할 b. 싫었는 c. 싫었던 d. 싫을

9. 한국 남자친구를 _____,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 a. 사귄기 때문에 b. 사귀겠기 때문에 c. 사귀었기 때문에 d. 사귄기 때문에

10. 나는 한국에 3년동안 살고 있지만 아직 구경하지 _____ 데가 많아요.

- a. 못하는 b. 못한 c. 못할 d. 못했은

11. A: 휴대폰 왜 _____?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B: 미안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 a. 꺼졌어요 b. 켜어요 c. 꺼었어요 d. 꺼져요

12. 나도 모르게 내 편지를 _____ 사람이 너였어?

- a. 뜯어 본 b. 뜯어 봤었던 c. 뜯어 볼 d. 뜯었봐

13. 리리가 어제 도서관에 _____ ?

- a. 있더라 b. 있는다 c. 있겠다 d. 있었는다

14. A: 민웅 씨랑 같이 있을 때 _____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B: 이미 헤어졌으니까 다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a. 행복했었던 b. 행복했었서 c. 행복했어서 d. 행복하었서
15. 중학생 _____ 남동생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구나.
 a. 이었겠던 b. 이 c. 이었었던 d. 이던
16. 오래 전부터 중국음식이 먹고 _____, 어떻게 만들야할지 모르겠어요.
 a. 싶겠는데 b. 싶었는데 c. 싶었는데 d. 싶는데
17. 너 진짜 내가 _____ 친구 맞아?
 a. 알았겠던 b. 알았는 c. 알을 d. 알던
18. 조금 전에 왕밍이 이리로 _____.
 a. 지나갔는다. b. 지나가고 있다 c. 지나가더라 d. 지나가겠다
19. 나는 비에 _____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어갔어요.
 a. 젖어서는 b. 젖는 c. 젖을 d. 젖은
20. A: 엄마, 어제 교수님 만나셨죠?
 B: 응, 그래. 교수님께서 참 친절 _____.
 a. 하시더구나 b. 합니다 c. 했구나 d. 하였다
21. A: 어제 _____ 음식이 중국 음식이었지?
 B: 아니, 한국 음식이었어.
 a. 먹기 b. 먹었 c. 먹고 d. 먹은
22. A: 어제 모임에는 바빠서 못 갔다. 몇 명이나 _____?
 B: 실은 나도 바빠서 못 갔어.
 a. 오다 b. 왔더냐 c. 옵니까 d. 왔으니까

※ 다음에 대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1) 이름: _____ 출생 연도: _____

(2)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요?

a. 6개월~1년 b. 1년~2년 c. 3년~4년 d. 5년 이상

(3)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본 적 있어요?

a. 네. b. 아니요.

(4)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급수는 몇 급입니까?

a. 3급 b. 4급 c. 5급 d. 6급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구두 인터뷰 문항

※ 일반적 질문으로 유도하기

1.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2. 한국에 올 때 중국공항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3. 고향이 어디예요? 한국이 고향과 날씨가 많이 다른가요?
4. 전공이 뭐예요? 왜 그 전공을 선택하셨어요?
5. 한국에 안 왔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6.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7. 한국음식 어때요? 중국음식 그리워요?
8. 한국에서 연예인 가운데 직접 본 적이 있는 연예인이 있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봤어요?
중국에서는요?
9. 한국인 친구가 많아요, 중국인 친구가 많아요? 친구랑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재미 있었어요?
10. 중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사귀던 여자(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11.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이랑 다른 점이 뭐였어요? 느낀 점이나 큰 차이를 말 해 보세요.

※ 드라마<폴 하우스>장면을 보고 이야기하기

1. 요즘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 많아요. 혹시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2. (드라마 장면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드라마 봤어요? 그 내용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래요?
3. (드라마 장면을 제시하며 보고) 두 주인공이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4. 이 장면들 아름답죠? 한국에서 어디 여행해 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 이유는요?

※ 중국 전통 전설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 하기

1. 중국의 전통 전설인 ‘후예사일(后羿射日)과 향아분월(嫦娥奔月)’의 그림을 보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록 3>

참고그림

드라마



전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국문학과	학 번	20097702	과정	석사·박사
성명	한글 장 위 한문 張 巍 영문 Zhang Wei				
주 소	광주 동구 계림동 215-2번지 계림교회 학사관 406호				
연락처	e-mail : weiweiacy@hotmail.com				
논문제목	한글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영문 : A Study of Interlanguage of Chinese Korean Learner -Focusing on the Korean Past Tense-				
<p>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여부 : 동의(●) 반대()</p> <p style="text-align: center;">2011 년 6 월</p> <p style="text-align: center;">저작자: 장 위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조선대학교 총장 귀하</p>					